



최근 국제무대에서 연달아 쓴맛을 본 한국축구가 유망주 육성을 위한 전면적인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K리그 2군 무대인 R리그를 22세 이하 리그로 바꿔 어린 선수들의 출전기회를 넓혀겠다는 복안이다. 2016년 9월 성남종합운동장에서 열렸던 수원삼성과 성남FC의 R리그 경기. 사진제공 | 한국프로축구연맹

R리그, 내년부터 ‘U-22 K리그’로 바꾼다

(K리그 2군리그)

프로연맹 ‘유망주 육성 프로젝트’ 추진

24세 이상 선수도 출전하는 R리그 단점 보완
연령범위 좁혀 22세 이하만 출전해 기회 확대
출전기회 적은 20~22세 선수 실력향상 기대

한국축구는 최근 실망의 연속이었다.

2018년 1월 중국에서 열릴 2018 아시아축구 연맹(AFC) 23세 이하(U-23) 챔피언십 예선(7월 19~23일·베트남 호치민)에 출전한 우리 U-22 대표팀은 최악으로 끝난 동티모르와 0-0으로 비겼고, K리그 울스타팀은 하노이 미당국립경기장에서 7월 29일 열린 베트남 SEA(동남아시아)게임 대표팀(U-22)과 친선경기에서 굴욕적인 0-1 패배를 맞았다.

공교롭게도 K리그 울스타팀을 격파한 상대가 AFC U-23 챔피언십 예선에서 한국에 1-2로

패한 팀이라 더욱 불똥했다. 그렇다고 우리 U-22 대표팀이 베트남을 압도한 것도 아니었다. 당시 현장을 찾았던 대한축구협회 김호곤 기술위원장(부회장)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연령별 대표팀을 운영하면 어렵다는 생각이다. 모든 아시아 국가들이 성인레벨 직전 단계의 선수들을 집중 육성하는 분위기다. 우리도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걱정했다.

그동안 운영초점을 A대표팀에 맞춰온 협회는 예나 지금이나 연령별 대표팀을 주먹구구식으로 이끌어왔다. 아시안게임, 올림픽 등 주요대회 본선이 임박해서야 좀더 긴 소집기간, 몇 차례 평가전 시리즈가 마련될 뿐이다. 규정상 선수들의 소집훈련이 원활하지 않은 탓이다. 여기에 아마추어와 프로 선수는 뚜렷한 격차가 있고, 프로 선수는 출전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제대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한다. 선수발굴과 육성, 전력강화까지 무난히 연계되는 시스템이 마련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를 K리그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규정이 23세 이하 선수의 투입이다. 반드시 1명 이상 출전하되,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교체카드를 전체 3장 가운데 2장까지만 사용하도록 했다. 이 방안은 축구계 전체에 동력을 불어넣기에는 한참 부족하다. 이에 따라 한국프로축구연맹은 또 다른 시도에 나선다. 현재 시행 중인 R(리저브·2군)리그의 전면적인 개편이다. 고교를 졸업하고 프로에 입단한 선수들이 출전 규정이 적용되는 23세가 될 때까지 공백기가 발생한다는 사실에 착안, 기존 R리그를 U-22 K리그(가칭)로 바꾸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클래식(1부리그) 6개, 챌린지(2부리그) 6개 구단들이 출전하는 R리그는 23세 이하 국내 선수들의 무제한 출전이 가능하지만 최대 5명까지 외국인 선수와 24세 이상 선수들의 출전도 허용해 어린 선수들의 육성은 아무래도 한계가 두

렷하다. 심지어 일부 팀은 부상 선수들의 회복 여부를 점검하는 데 R리그를 활용하고 있다. ‘젊은 선수의 경기력 유지 및 향상’이란 본질이 상당히 퇴색했다는 지적이다.

K리그 관계자는 8월 1일 “정말 뼈아픈 실력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20세부터 22세까지는 기약 없이 (벤치 호출을) 기다리는 경우가 많다. R리그를 아예 U-22로 출전 범위를 좁히면 고른 성장을 끌어낼 수 있다”고 긍정적인 전망을 밝혔다. 이 제도는 모두의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전체 하

에 이르면 내년부터라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이와 별개로 협회는 무난한 선수 육성을 위해 프로에서 뛰지 못하는 어린 선수들을 ‘임대 신분’으로 끌어 모아 별도의 팀을 구성해 K3리그나 K리그 챌린지에 참여하는 방안, A·B팀을 구분해 무대를 달리한 리그에 참여시키는 유럽 시스템 도입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있다.

남양현 기자 yoshike3@donga.com

K리그 클래식 24라운드 관전포인트

연속 멀티골 조나탄 신기록 행진 이을까

울산전 5경기 연속 멀티골 도전



수원삼성 조나탄

‘KEB하나은행 K리그 클래식 2017’ 24라운드가 8월 2일 전국 6개 경기장에서 일제히 열린다. 열흘 가까이 풀맛 같은 울스타전 휴식기를 가진 뒤 처음 만나는 경기다. 공교롭게도 순위표가 나란히 붙어 있는 6팀이 피할 수 없는 대결을 앞두고 있다. 최대 빅매치는 2~3위 수원삼성과 울산현대(이상 12승6무5패·승점 42)의 올 시즌 3번째 만남이다.

●2위 맞대결, 수원 조나탄 발끝에 달렸다?

울산 원정에 나서는 수원은 믿을 구석이 하나 있다. 4경기 연속 멀티골이라는 K리그 신기록의 주인공 조나탄이다. 20라운드 인천 유나이티드전을 시작으로 4경기 내리 2골을 올리며 새 역사를 써냈다. 그의 발끝 덕분에 수원은 상승세를 타고 선두권 경쟁에 뛰어들었다. 조나탄의 기록행진과 함께 울산의 추격을 뿌리치느냐 여부가 최대 관전이다.

맞서는 울산은 2전승이라는 상대전적 우위를 기억하고 있다. 올 시즌 홈과 원정에서 모두 2-1 짜릿한 승리를 거뒀다. 최근 영입한 스위스 출신 공격수 수보티치가 K리그 적응을 끝내고 본격적인 기동을 앞뒀다.

조나탄을 상대할 맞불 작전이 효과를 보게 될지 흥미롭다.

●‘동상이몽’ 허리싸움도 치열

순위표 가운데 자리한 중위권 팀들도 중요한 대결을 펼친다. 나란히 승점 34(9승7무7패)를 기록 중인 5위 강원FC와 6위 FC서울이 삼양벌에서 만난다. 강원은 12라운드에서 3-2로 이겨 2990일만의 축포를 쏘아올린 호탕한 기억이 있다. 다만 최근 2경기 연속 공격진이 침묵하며 무득점에 그친 점이 마음에 걸린다. 서울은 미드필더진 공백이 뼈아프다. 고요한과 주세종이 각각 경고 누적과 지난 경기 퇴장으로 출전할 수 없다. 두 자리를 효과적으로 채우는 일이 급선무다. 8위 전남 드래곤즈(7승5무11패·승점 26)와 9위 상주상무(6승6무11패·승점 24)도 중위권 도약을 위해 총공세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엔 꼴찌 자리 바뀔까

최하위권으로 처진 11위 인천(3승10무10패·승점 19)과 10위 광주FC(4승7무11패·승점 19)는 각각 홈과 원정에서 꼴찌 탈출에 시동을 건다. 인천은 단독선두 전북현대(14승5무4패·승점 47)를 불러들이고, 광주는 7위 포항 스틸러스(9승2무12패·승점 29)와 만난다. 경기결과에 따라 최하위 자리가 바뀔 수 있다. 인천은 18라운드 광주전 1-0 승리 이후 5경기 동안 이기지 못한 반면, 광주는 23라운드 전남전 2-1 승리로 분위기가 좋다. 강등 마감시한이 다가오는 만큼 1승이 소중한 두 팀이다.

고봉준 기자 shutoul@donga.com

‘축구종가’ 잉글랜드도 ABBA 승부차기 도입

‘축구 종가’ 잉글랜드에서 새로운 승부차기 제도를 볼 수 있게 됐다.

영국 스카이스포츠는 8월 1일(한국시간) “잉글리시풋볼리그(EFL)컵이 2017~2018시즌부터 ‘ABBA’에 기반을 둔 새 승부차기 방식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카라바오컵을 시작으로 과 체카트레이드 트로피는 물론 각 하부리그 플레이오프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ABBA물은 승부차기 선축 팀과 후축 팀이 번갈아 차는 방식에서 선-후-후-선축으로 순서를 바꾸는 방식이다.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변화다.

국제축구평의회(IFAB)는 최근 승부차기 선축 팀의 승률이 60%에 달한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ABBA물이라는 새 방안이 논의됐고, 2017년 5월 크로아티아에서 열린 유럽축구연맹(UEFA) 17세 이하 선수권대회와 6월 국내에서 열린 국제축구연맹(IFFA)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시범운영을 했다. 잉글랜드 컵대회까지 새 제도를 택해 제도 개편 논의가 더 커질 전망이다.

고봉준 기자

축구대표팀 조기소집, 이게 최선입니까?



취재파일

최현길 전문기자
choing2@donga.com

K리그 전 구단 반발 없이 일사천리 진행
포인 K리그 일정…팬들 배려는 관심밖
선발도 조기소집 대가로 이뤄질 가능성
월드컵도 좋지만 무기력한 K리그 아쉬움

한국이 2002한일월드컵에서 4강 신화를 이룬 배경에는 K리그 구단들의 희생이 컸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다. ‘국가적인 대사’라는 명분으로 무차별적인 선수차출이 이뤄졌고, 이런 일방적인 강요에도 프로구단들은 꺾소리 한번 못했다. 왜냐하면, 월드컵이 중요했으니까.

그런데 2002년 이후 프로구단들의 자세는 달라졌다.

‘대표팀이 살아야 프로가 산다’는 논리는 더 이상 먹혀들지 않았다. ‘프로가 살아야 대표팀도 산다’며 목소리를 냈다. 맞는 말이다. 프로구단이 선수들을 제대로 길러내야만 대표팀에서도 뽑을 선수가 많아서 좋고, 팬들의 관심도 끌 수 있어 흥행에도 도움이 된다.

하지만 당시 한국대표팀을 맡은 외국인 감독들은 여전히 프로구단을 호구로 여겼다. 대

표팀 선수차출에 관한 한 히딩크식 사고가 그대로 이어졌던 것이다. 프로구단들의 달라진 자세와 맞물리면서 갈등의 씨앗은 그렇게 잉태되고 있었다.

히딩크 이후 대표팀을 맡은 움베르투 코엘류 감독이 2004년 4월 사임하면서 “(한국대표팀을 맡은) 14개월 동안 72시간밖에 훈련하지 못했다”고 말한 것은 대표선수 차출의 갈등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본프레레 감독 또한 반쪽짜리 훈련을 하기 일쑤였다. 2006년 월드컵을 앞두고 지휘봉을 잡은 디아드보카트 감독은 40일간의 동계훈련을 준비하면서 일부 구단들이 반발하자 “훈련에 참가하지 않는 선수는 독일월드컵에 대령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선수선발의 결정권을 줬 감독들의 기싸움도 만만치 않았다.

한국축구에서 차출문제로 가장 시끄러웠던 때는 2006년 말~2007년 1월이었다. 당시 국가대표팀과 올림픽대표팀을 함께 관할했던 펠 베어벡 감독과 프로 구단들의 갈등의 골은 상당히 깊었다.

프로구단들은 FIFA가 정한 규정에 근거해 대표팀 소집규정을 제대로 만들어야한다는 주장을 했고, 협회가 대표팀 소집규정특별위원회라는 TF팀을 만들어 규정을 정비한 게 2006년 1월이다. 그런데 그해 말 한해 농사를 결정짓는 K리그 챔피언결정전을 앞두고 베어벡은 성남과 수원 선수들을 차출하면서 갈

등을 빚었다. 이듬해 1월에는 올림픽대표팀 차출 때문에 흥역을 지냈다. 당시 전체 프로 구단들이 사상 처음으로 선수차출을 보이키 하면서 진통이 상당 기간 이어졌다. 그 논란 이후 프로구단을 바라보는 협회의 시선이 바뀌기 시작했고, 갈등은 수면 아래로 조금씩 가라앉았다.

그 후 1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몇 차례 다녀온 현재의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 운영 규정에 따르면, “선수소집 개시일은 월드컵 예선의 경우 FIFA가 정한 매치 캘린더에 기재된 대회 및 경기 일정상의 월요일까지 한다”고 되어 있다. 쉽게 말해 경기가 열리는 해당 주의 월요일까지 소집을 허용하는 것이다. 대개 목요일 또는 금요일에 경기가 열리는 것을 감안하면 3~4일 전 소집이 되는 셈이다. 더 이상 주먹구구식 로컬 룰에 의존하지 않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췄다고 보면 된다.

물론 남아공월드컵이나 브라질월드컵, 그리고 최근의 러시아월드컵 카타르전의 예에서도 보듯 원 포인트 조기소집은 더러 용인됐다. 최근 한국축구의 핫이슈가 다시 조기소집이다. 조기소집이라는 단어 때문에 10여년전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간 것이다. 일방통행에서 공존과 상생의 구조로 바뀐 그 과정들 말이다.

신태용호는 규정보다 1주일 앞서 조기소집을 한다고 하지만 해외파의 경우 소속 구단이

보내줄 리 만무하고, 결국 대상은 K리그 선수들이다. 따라서 이번에도 K리그 구단들의 양보가 있었다. 여기에는 2가지 명분이 들어 있는 듯 하다. 한국축구가 최대 위기에 빠졌다는 점과 K리그들을 대거 뽑을 수 있다는 점이 MSG처럼 깔려 있다.

9회 연속 월드컵 본선진출의 사활이 걸린 최종 예선 2경기(이란, 우즈베키스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본선타락의 총격파도 엄정날 것이다. 그래서 한국축구 는 더 압박감을 느꼈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렇게 쉽게, 아니 단 한 구단의 반발도 없이 그렇게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었다는 게 의아스럽다. 심지어 이제는 조기소집 때문에 K리그 일정을 어떻게 바꾸느냐가 중요한 일이 되어버린 것을 보면서 과연 이래도 되나 싶기도 하다. 베트남에서 열린 울스타전 때문에 만신창이가 된 K리그이지만 그래도 한국축구의 근간은 K리그다. K리그 팬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이렇게 턱하니 갖다 바치는 모양새가 되어서는 안 된다.

대표팀 감독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K리그를 얼마나 뽑을지는 감독의 판단이지만 그렇게 중요한 경기를 앞둔 대표선발이 조기소집의 대가로 이뤄져서는 곤란하다. 이런 게 작용해서 대표팀을 선발한다면 흑역사의 한 줄로 기록될 게 분명하다. 대표팀이 조기소집을 해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것도 좋지만, 한 국가의 근간인 프로리그의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무기력한 K리그를 보면서 안타까워시 하는 소리다.